

“정치는 역사의 딸이고, 역사는 지리(地理)의 딸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정학의 중요성이 잘 표현된 말이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의 현재 정치는 그 나라의 역사에서 비롯되고, 그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가 놓여 있는 지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시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주요 인사들을 특사로 파견하였던 일이나,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미국, 일본을 순방한 것은 앞에 지적한 현재의 정치, 역사 그리고 지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외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조직과의 관계에서 자기나라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자주성 확보, 경제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일본 방문도 이러한 국가이익의 추구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일로 분쟁의 해결보다는 공동이익의 증진을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결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3500여명의 추가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현 2만8500명 선으로 유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조건을 최혜국인 NATO와 일본수준으로 격상시켜 줄 것 미 의회에 요청, 한국인의 미국방문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시행 등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성과라면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테러와 환경, 인권문제 등 범세계



불자 세상보기

정용길  
동국대 정치학 교수

협상의 원칙과 외교의 조건

적 문제에 한국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한국의 협력약속 그리고 한국 최고기시장개방 등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모두 관심이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의 수준을 넘어 21세기 전략동맹을 맺어 글로벌 파트너로 관계를 격상시키고, FTA 연내 비준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방위비 분담증액 대신 분담방식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한 것 등이다.

이제 심각한 문제로 남는 것은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압박해 온 미사일방어 체제(MD)구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잠여, 방위비분담금 증액, 평택기조지성비

용 증액, 아프간 추가파병,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등 6대 안보쟁점사항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최고기장개방문제와 FTA 국회비준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들로 한국이 입는 손실은 위의 6대 안보쟁점사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안보상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동맹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보다 월등한 국력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며 그들의 국익을 쫓기는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여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 외에 북핵 해법, 한일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 양국간 현안과 북핵,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에 들어간다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이 FTA보다 더 넓은 의미의 경제통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용어인 EPA(경제연대체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바라는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무역역조 그리고 부품산업분야의 기술이전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이다. 또한 일왕(日王) 초청문제도 논란이 예상되는 일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주변 4개 국가들은 국력이 있어서 한국이 1:1로 상대하기가 힘겨운 강대국들이라는 현실이다. 그에 더하여 또 우리는 현재 분단국가라 외교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협상에서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약소국이 전적으로 이익만을 취할 수는 없다. 서로 양보하는 것이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협상의 철칙임을 알아야 한다.

아닌데,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중에 시누이에게 사과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런데 그 순간은 분노를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후로도 간혹 누가 가볍게라도 탁 치는 일이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며 공격적이 되는 것이었다.

마음으로 녹이는 회초리

질에 다니게 된 후 이씨는 차차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요히 관하는 실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기 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울고 화내는 아이의 마음이 보였다. 사실 어린 자기는 맞기가 싫고 맞아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었던 것이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며 반항하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무섭고 두려워하였다. 어떻게 해볼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분노와 혐오의 감정은 표면되지 못하고 마음 깊이 억눌려 있었다. 어른이 되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몸을 탁 치면, 회초리로 아프게 탁탁, 맞던 기억이 연상되어 올라오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자기 속의 자성증상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애로 살던 증상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오직 근본 자성의 자리에 놓아야만 한다는 법어를 새겨본다. 이씨는 이제 마음속에 새겨진 회초리 자국을 마음속으로 녹여가려고 정진하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부처님 法대로 사는 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카필라국의 왕자 고타마시 타르타가 니런선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부처님과 그 가르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승단(僧團)은 번듯한 모임, Sangha)이 생겼다. 삼보 다시 말해 불법승(佛法僧)이 형성되면서 불교는 종교로서의 형식을 완성했다.

오늘날 불자들은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을 신행의 골간으로 삼기보다는 많은 방편 중의 하나에 집착하여 편협하게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승단이 부처님 법에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매우 왜곡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라는 지극히 당연한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과제라 떠오른 것이다. 조계종이 유교(遺敎)법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연찬회를 가진 것은 바로 시대적 과제가 된 ‘부처님 법대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불교의 정체성에 철저히 천착한 관점에서 오늘의 모습을 성찰하고자 한다는 것은 매우 옳기 있는 일이다. 비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끝내 참회조차 하지 못하는 법이다. 오늘날 조계종이 그 몸의 안쪽으로 시상을 들리고 중흥조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처럼 형성된 ‘자기고민’의 분위기가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확산되어 새로운 종단의 틀을 정출해내는 에너지가 되길 기대한다.

연등축제의 가치를 높이자

전국의 도심에 불경들이 밝았다. 관련행사로 푸짐하게 준비되고 있다. 꽃이 만개하고 푸른 잎이 돋아나 생명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이 지상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알리는 맑은 소리들이 가득하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부처님 오시는 소리이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눈 깜짝이는 것도 부처님 오시는 소리다.

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찍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고 있다. 정부가 연등축제를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조계종이 연등축제는 일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놀이임을 분명히 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연등축제의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근무 문화재청장에게 연등축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등축제를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닌 우리민족의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움직임은 대단히 신선하다. 우리민족의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비중은 매우 크다. 연등축제도 팔관회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법회와 더불어 민족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역사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외적인 홍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 외국에 언급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비전이 포함된 신명나는 오늘의 축제가 흥보되길 기대한다.

괴방반응

이씨는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둘은 쉴 새 없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이씨의 말을 듣다가 “맞아. 정말 그래!” 하면서 손바닥으로 이씨의 어깨를 탁 쳤다. 세계 친 것은 아니었고 조금 아프다실 정도였다. 그런데 이씨는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게 “아, 왜 사람을 때리는 거야!”하며 소리 질렀다.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노려보았다. 친구는 놀라서 “아, 내가 언제 때렸니. 왜 그 정도 가지고 그래?”했다. 이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다. “뭐, 그 정도라니. 도대체 사람을 필요로 하고 함부로 때리고 있어.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알지나 해.”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씨의 음성이 높아지자 둘이 싸우는 줄 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훑훑훑 쳐다볼 정도였다. 친구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난 아무 뜻도 없었는데...” 순간 숨을 헐떡거리던 이씨는 “아차,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었다.

맞기 싫어요

어린 시절 이씨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였다.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회초리로 때렸다. 6남매의 장녀였던 이씨는 초등학교 전부터 동생들을 들보아야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들이 어질러놓거나 울고 있으면 모두 이씨 책임이

“왜 사람을 때리는거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 마음속에 새긴 회초리

었다. 변명하거나 반항하려하면 더 맞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매일매일 맞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이씨는 맞는 게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지긋지긋했다. 특히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남는 날은 치마를 입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애들은 ‘넌 맨날 남자처럼 바지만 입고 다니니’ 하고 놀렸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켰다.

천만다행인지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자취를 하게 되어 무척 힘든 생활이었다. 그래도 이씨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안 보게 되고 회초리를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친척들이 “아유, 어린 것이 어떻게 혼자 밥해 먹고 학교에 다니니” 하며 격정들을 했지만 모르지 매 맞지 않는 것이 좋아 신이 날 정도였다.

“그러면서 어릴 때 맞고 지낸 사실을 점점 잊

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시누이가 와서 집을 둘러보다가 “언니는 참 살림도 잘 하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어울리는 것만 골라서 사다놓았을까” 하며 이씨의 어깨를 탁 쳤다. 그 때까지 칭찬받아 기분이 좋던 이씨는 마음이 들떠는 것을 느꼈다. 불같은 분노가 올라왔다. 시누이에게 “아가씨! 왜 때리는 거예요!”하면서 무섭게 노려보았다. 시누이는 할 말을 잃고 당황하여 쳐다보았다. “언니, 내가 언제 때렸어요.” “그럼 때린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맞아야 하나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시누이가 새파랗게 질려 떠난 뒤에야 이씨는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왜 그렇게 괴방반응을 했을까. 사실 시누이가 때린 것이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북, 모듬북·장고·징·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봉인사 사마타 위빠사나 5월 집중수행

“왜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부처님께서서는 수행을 왜 가르치셨는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열반)을 얻는 것이며, 생로병사의 고통인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 일 시 : 1차 : 5월 1일 ~ 5월 10일 2차 : 5월 13일 ~ 5월 22일 3차 : 5월 25일 ~ 6월 3일 (입실 오후 5시, 퇴실 오후 1시까지)

■ 동참금 : 10일, 30만원 (환불은 프로그램 시작 3일전까지 가능)

■ 준비물 : 좌선하기 적합한 편안한 옷, 슬리퍼, 우산, 개인용품, 개인 세면용품 및 필기도구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봉인사 홈페이지(www.bonginsa.net) 접속 후 명상코너 템플스테이 예약계시관 이용 전화 접수합니다.

■ 연락처 : 031)574-5585, 528-558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봉인사 한길정진원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 ◇인사말, 축하,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시 :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